

모(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A Study about Living together or not with the Mothers (Mothers-in-law/ Mothers) and the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한남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부교수 양 명 숙
동대전중학교
교 사 하 경 란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Han Nam University
Associate prof. : Myong-Suk Yang
Dong-Tajeon Middle School
Teacher : Kyung-Ran Ha

〈목 차〉

- | | |
|--------------------|---------------|
| I. 서 론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difference of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by living with mothers-in-law or mothers.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are measured by marital satisfaction, the satisfaction of used time and role performance and financial satisfaction. For this study, 449 employed wives in Tajeon are the subjects of survey.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degree of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indicated more than middle level($M=3.44$). While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marital satisfaction indicated high, the degree of satisfaction in the used time and role performance indicated low. 2. On the whole, the influential variables on the marital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were found in the following orders ; wife's and husband's

* 본 연구는 97학년도 한남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ducation level, job and income. 3. There was a non-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life satisfaction of employed wives between living with mothers or not. But the differences between living with mothers-in-law and mothers were significant in the satisfaction of used time and role performance.

I. 서론

최근 10여 년간 한국에서 일어났던 사회변화 가운데, 특히 경제성장 및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여성들의 사회진출 등은 가정내외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게 하였다(양명숙, 1992). 특히 여성들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이 다양화되고, 이에 여성 개인의 경제적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가 증대되면서 주부의 취업은 보편화되어, 1994년에는 전체 기혼 여성의 47.1%가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송, 1996). 또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핵가족은 서구의 전형적인 핵가족과는 달리 그 관계적 측면에서 확대가족의 속성을 간직하며서 또한 내면적으로는 여전히 전통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전통적인 성역할관에 의한 갈등이 야기되기도 한다. 즉, 취업주부는 직장에서 기대되는 역할이외에 가사 관리, 자녀 양육, 남편에 대한 기본적인 내조, 친척과의 유대와 노부모 보살피기 등으로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취업주부의 과중한 역할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적인 조치가 강구되지 않는 현실에서, 어머니(시·친정)와의 역할분담을 위한 교류는 취업 주부에게 도움이 된다. 즉 취업주부는 어머니(시·친정)와의 교류를 통해서 정서적 안정은 물론 가정생활에 대한 조언과 함께 가장 문제가 되는 자녀 양육에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 부모세대와의 동거도 비용이 아닌 보상으로 느껴질 수 있다(한국가족학 연구회, 199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시·친정)와의 동거여부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가정관리의 궁극적 목적인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취업주부의 합리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방안 모색과 아울러 변화하는 사회속에서 상호 협조적

인 성인 자녀-부모관계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생활만족도의 분포 특성은 어떠한가
 - 1-1) 일반적인 변인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1-2) 동거 이유에 따라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 어머니(시·친정)와의 동거여부에 따라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1) 어머니(시·친정)와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간에 생활만족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2-2)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과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간에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어머니(시·친정) 동거여부 및 생활만족도에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활만족이란 연구자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되는데, 김재경(1992)은 가정에서 영위되는 생활전반을 통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기대 및 목표의 성취정도에서 느끼는 충족감의 정도로 정의하였고, 이정숙(1994)은 가정생활의 전반에서 주관적으로 느끼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정의했다. 즉 연구자에 따라서 생활만족도를 다양하게 측정하고 있기에 이를 살펴보면 <표 1>에서와 같다.

특히 이연숙, 유가효, 이순향, 조재순(1991)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로는 가사노동 수행표준과 남편 지원정도라 하였고,

〈표 1〉 생활만족도 연구자에 따른 하위영역 분류

연구자	년 도	하 위 영 역
임정빈	1988	생활표준일치, 경제적 만족, 시댁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남편과의 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사노동영역, 생활전반에서 느끼는 만족
조미환	1990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시댁과의 관계, 가족간의 의사소통, 가사노동, 여가, 주거영역과 생활전반
최외선 손현숙	1991	남편·자녀·시댁과의 관계, 경제문제, 가사노동영역, 전반적 만족
이연숙 유가효 이순향 조재순	1991	자녀보육행동, 부부관계, 가사노동관리, 갈등수준(시간갈등, 경제갈등, 역할갈등, 인간갈등)
최동숙	1991	재정상태, 부부관계, 자녀관계, 주부자신의 위치 및 역할,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 가사수행, 생활표준의 일치
김재경	1992	부부관계, 인척관계, 의사소통, 재정관리, 가사노동분담
임정빈 고보선	1992	식생활, 건강, 교육, 주생활, 가족관계, 가사노동환경, 여가, 경제, 친구와 이웃, 지역사회
이정우 김경숙	1993	결혼전반, 재정문제, 시댁관계, 생활일치의 표준, 부부관계, 부모자녀관계, 여가 및 지역사회 참여영역
이정숙	1994	결혼전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재정문제, 가사노동, 여가, 자신의 역할에 대한 평가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	1994	부부생활만족도, 여가생활 만족도, 부모생활 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 가사노동 만족도

생활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직접적인 설명변수로 갈등이나 신체/심리적 부적응 증상이라고 보고했다. 김재경(1992)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갈등의 영역은 재정관리갈등 정도가 가장 높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생활만족도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되고 있는데, 하위영역에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한 결혼만족과 시간 및 가사노동에 관련된 영역 그리고 경제문제에 관한 영역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생활만족도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취업주부가 가정생활전반에 걸쳐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으로 정의하고, 취업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영역 중에 특히 결

혼만족과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 경제생활만족을 하위영역으로 하였다.

먼저 결혼만족은 결혼생활을 평가하는 변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학자들간에 개념과 고유 영역에 많은 차이를 보이고 관련 변수 또한 사회 인구조학적 변수에 머물렀으므로 인성적·사회심리적 변수의 발견이 중요한 과제로 중시되고 있다(이정연, 1987). 그동안의 전반적인 연구경향을 보면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에서 인구조학적 변수로는 학력, 취업유무, 생활수준 등이고 인성적 변수로는 자아 실현성, 성역할 특성 등으로 나타났다. 결혼적응이나 결혼만족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부인의 직업지

위와 취업동기, 직업만족도,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지지도, 부인의 역할갈등 또는 역할갈등 등을 관련변인으로 보고 있다(김경숙, 1987; 도미향, 최외선, 1990; 박미령, 1987; 서동인, 1985).

주부의 취업이 결혼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연구결과(김명자, 1985; 이정연, 1982)와 오히려 부정적인 면을 보인 연구(노명희, 이숙, 1991)가 있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연령, 자녀수, 가족구조, 부인의 취업유무, 결혼지속년수 등의 변인들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치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Rhynne, 1981). 또한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부부간의 정서관계에 집중되어 있고 부모-성인자녀간의 정서적 관계와 결혼만족도를 연결시켜 본 직접적인 연구는 드물지만 결혼적응이나 결혼갈등 및 고부관계에 관한 논문에서 부모-성인자녀관계가 부부간의 결혼관계와 관련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고정자, 1987; 박성연, 1989).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취업 주부의 시간 제약과 과중한 역할분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박미은, 1993; 조혜정, 1983; Greenhouse & Beutell, 1985), 한 경미(1989)의 연구에 따르면 취업주부가 가사작업에 소비하는 시간은 하루평균 6.2시간으로 선진 외국의 취업주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 예상되는 생활수준과 주부교육수준 및 직업지위의 향상에 따라 주부의 신체적 측면의 가사는 시장에서의 재화와 용역으로 대체될 것이나, 질적이고 정서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하여 취업주부의 총 가사 작업시간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가정과 직장에서 이중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취업 주부의 가정관리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연령, 교육수준, 직업, 자녀수, 월 평균 소득, 고용인 유무, 취업동기, 시간갈등 등으로 나타났으며(최자령, 1991), 이외에 취업동기와 직종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강인, 1990).

Campbell, Converse & Roders(1976)는 개인의 재정상태에 대한 만족이 전체 생활만족의 중요한 예측

치라고 밝히면서 또한 개인의 경제적인 만족이나 복지감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양보다는 자원에 대한 개인의 만족감에 더 의존한다고 주장하였다(Blau, Ferber, 문숙재의 역, 1994). 대부분의 경제생활 만족도에 대한 연구들은 부부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되어 있는데 대체로 경제생활만족도는 부부관계 및 전체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재경·문숙재, 1992; 김양희 외, 1992; 정선희·오정옥, 1991).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가 부부간의 정서관계나 역할갈등, 시간 제약 등에 집중되어 있고 부모세대와의 동거여부와 연결시켜 본 연구는 흔하지 않다. 성인 자녀세대와 부모세대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은 심리적인 질적 유대관계로 나타났는데(박성연, 1989; 박성연·최혜경, 1985), 특히 장남 경우는 자녀로서의 의무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송현애·김순옥, 1988; 최정혜, 1992). 그러나 구은옥(1989)의 연구에 의하면 연령이 낮을수록 장남이 부양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율이 낮아지고 있었고, 엄혜정(1990)의 연구에 의하면 장남이 의의 자녀와 동거하는 경우와 딸과 동거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동거에 대한 부담도는 김송애(1991)와 한은주(1993)의 연구에 의하면 비동거시의 경우보다 동거할 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부모와의 동거는 고부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명자·이윤정, 1995; 송경아, 1987; 이신숙·서병숙, 1994; 한희선, 1991).

그러나 취업 주부의 경우는 자녀양육과 교육문제 그리고 가사노동 등에서 남편들 보다 이중 역할에 따른 역할 갈등을 더 많이 경험하는데, 이는 결혼만족(서동인, 1985; 정혜정, 1985) 및 직무만족(강성희, 1988)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취업주부들은 과중한 역할분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가족구성원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경험이 풍부한 어머니로부터의 정서적 지지와 부족한 일손의 도움을 받고자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효재, 1983). 시부모 부양태도에 대한 윤유경(1985)의 연구에 의하면 도움의 교환정도에 따

라서 지속적 부양의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움을 많이 받을수록 지속적 부양의도가 긍정적이고 적게 받을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성인자녀 부모관계가 일방적이기 보다는 쌍방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주원(1994)은 시모-자부관계를 도움을 주고 받는 호혜적인 관계로 파악하고 시모에 대한 부담감을 자녀양육과 가사노동의 분담으로 보상 받고 있다고 하였으며, 최성재(1985)는 노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의 가치를 향상시킴으로써 성인자녀와 균형있는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취업 주부에게 있어서 어머니(시·친정)의 동거여부가 취업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는 것은 성인자녀와 부모관계의 호혜적인 가능성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혼여성 중에서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모두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전일제 취업주부 44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남편이 생존해 있는 경우로 제한한 것은 남편이 생존해 있지 않는 경우는 시어머니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취업의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에 취업주부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표집과정에서 전일제이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교사와 간호원 공무원 등을 주대상으로 하였다.

본 조사를 위한 자료수집에 앞서 1996년 2월10일부터 2월 20일까지 설문지를 통해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용어나 질문내용의 표현상의 문제점을 수정, 보완한 후에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1996년 4월15일부터 4월30일까지 실시하였는데 대전광역시의 관공서와 중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국영기업체 및 병원 등에 질문지를 배부하였다. 총 60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연구대상의 조건에 맞지 않거

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하고 449부를 실제 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주부의 연령은 평균 35.24세이며, 남편의 연령은 평균 37.94세이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 졸 이하가 42.7%, 대졸 이상이 57.3%로 나타났는데, 남편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졸 이하가 17.2%, 대졸이 61.1%, 대학원 졸 이상이 21.7%로 주부보다 교육수준이 더 높았다. 주부의 직업은 크게 교사 집단과 비 교사 집단으로 나누었는데 교사 집단이 전체의 40.8%이고, 남편의 직업 역시 교육계에 근무하는 경우가 전체의 32.1%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가진 주부를 대상으로 표집하는 과정에서 표집의 용이성으로 인하여 교사집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가족의 수입은 평균 2,629,000원으로 200만원 이하가 37.7%, 201-300만원이 43.7%, 301만원 이상이 19.6%로 최저 70만원에서 최고 990만원까지 나타났다. 주부의 첫째 자녀 연령은 취학전인 7세 이하가 전체의 46.7%이고, 8세 이상이 53.3%로 나타났다. 주부가 장녀(외동포함)인 경우가 전체의 42.3%, 남편이 장남(외동포함)인 경우가 전체의 42.3%였다.

2. 측정도구

본 연구를 위하여 작성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연령, 교육수준, 직업 출생순위, 첫째 자녀의 연령), 그리고 생활만족도(결혼만족도,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와 동거의 이유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에 취업 주부의 생활만족도척도는 다음과 같다.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생활만족도는 결혼만족도,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의 3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정생활 전반에 대해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으로 정의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2점), 반반이다(3점), 대체로 그렇다(4점), 정말 그렇다(5점)의 Likert식 5점 척도를 사용하였

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결혼만족도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는 양명숙(1992)이 사용한 척도로 예비조사 한 결과, 애정적인 부부관계 5문항, 결혼 생활에 대한 불만 요인 3문항, 결혼에 대한 적응요인 2문항으로 총 10문항만을 채택하였다.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1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진술방향이 반대로 표현된 문항은 점수를 반대로 주었다.

2)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의 측정도구는 박미은(1993), 최자령(1991), 고미영(1992)의 연구를 기초로 하였다. 시간사용만족도는 가사작업수행 시간에서 2문항과, 여가시간에서 2문항으로 전체 4문항을 채택하였고, 신뢰도 계수(Cronbach's α)는 .90으로 나타났다. 역할수행만족도는 직장인으로써의 역할 3문항, 주부로서의 역할 3문항을 채택하여 총 6문항으로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85이다. 따라서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 측정에는 총 10문항이 채택되었다.

3) 경제생활만족도

박미금(1993)의 연구에서 사용한 30문항중 예비 조사를 통하여 생활표준 달성 및 장래대비에 대한 내용 3문항, 일상 소비생활 2문항, 자녀교육 및 정액지출 소비생활 2문항으로 모두 7문항을 채택하여 경제생활만족도를 측정하였으며, 신뢰도계수(Cronbach's α)는 .91로 신뢰할만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자료처리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례수(N), 백분율(%), 평균(M), 표준편차(SD) 그리고 범위(Range)를 구하였다. (2) 일반적인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를 파악하고 동거 이유와 별거 이유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빈

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변량분석을 하기 위해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사후검증은 Fisher의 LSD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어머니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으며, 집단간의 생활 만족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GLM (General Linear Model)을 이용하여 변량분석을 하였다.

통계처리는 SAS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여 한남대학교 응용통계학과에서 분석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p < .10$ 이하 유의한 것만 채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생활만족도의 분포 특성

1) 일반적인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표 2>에서와 같이 평균 3.44점으로 중앙값인 3점과 비교해 보면 중간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활만족도 중에서 결혼만족도는 평균 3.92점으로 가장 높았고,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는 평균 2.83점으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전일제 취업주부의 시간부족과 역할갈등을 알 수 있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취업주부의 생활 만족도는 <표 3>에서와 같이 남편의 교육수준 ($p < .001$), 가족의 수입($p < .001$), 주부의 교육 수준($p < .01$), 남편의 직업($P < .05$), 주부의 직업($p < .10$)에 따라 집단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남편의 교육 수준은 대졸 집단($M=3.48$)과 대학원 졸 이상의 집단($M=3.51$)이 전문대 졸 이하의 집단($M=3.20$)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가족의 수입은 301만원 이상의 집단($M=3.61$)이 200만원 이하 집단($M=3.34$)이나 201-300만원 집단($M=3.42$)보다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전문대 졸 이하의 집단($M=3.35$)보다 대졸 이상의 집단($M=3.50$)이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직업에 있어서는 비교육 계통($M=3.40$)보다 교육계통($M=3.51$)이, 주부의 직업도 교사집단($M=3.49$)이 비교사 집단($M=3.40$)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하위영역별 평균 및 표준편차

		N	M	SD	Min.	Mar.
생활만족도		435	3.44	0.49	1.62	4.90
하위영역	결혼만족도	434	3.92	0.66	1.60	5.00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	430	2.83	0.73	1.00	5.00
	경제생활 만족도	427	3.55	0.63	1.57	5.00

〈표 3〉 일반적인 변인에 따른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차이검증

변수	집단	N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시간사용및역할수행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M	F	LSD	M	F	LSD	M	F	LSD	M	F	LSD		
주부의 연령	30세이하	104	3.49	1.40		4.06	2.88**	A	2.92	1.62		3.45	4.09***	B A		
	31-35세	127	3.38			3.89			2.75			3.48				
	36-40세	123	3.47			3.91			2.79			3.71				
	41세이상	61	3.40			3.77			2.93			3.51				
남편의 연령	35세이하	162	3.41	0.41		3.97	2.89*	A	2.85	1.60		3.39	9.47****	B A A		
	36-40세	137	3.46			3.96			2.74			3.69				
	41세이상	128	3.44			3.80			2.90			3.61				
주부의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198	3.35	9.58***		3.78	13.82****		2.86	0.47		3.40	17.63****			
	대졸이상	251	3.50			4.02			4.02			3.66				
남편의 교육수준	전문대졸이하	75	3.20	11.44****	B	3.60	11.21****	B	2.76	0.64		3.24	12.46****	B A A		
	대졸	259	3.48			A			3.96			A			2.86	3.59
	대학원졸이상	93	3.51			A			4.04			A			2.81	3.69
주부의 직업	교사집단	178	3.49	3.18*		4.00	4.31**		2.78	1.70		3.69	15.00****			
	비교사집단	271	3.40			3.86			2.87			3.45				
남편의 직업	교육계통	140	3.51	4.47**		4.03	6.01**		2.80	0.40		3.68	8.71***			
	비교육계통	309	3.40			3.86			2.85			3.49				
가족의 수입	200만원이하	99	3.34	7.08****	B	3.80	3.07**	B	2.86	1.48		3.32	14.03****	C B A		
	201-300만원	260	3.42			B			3.92			A			2.79	3.56
	301만원이상	76	3.61			A			4.05			A			2.95	3.82
첫째자녀 연령	7세이하	229	3.43	0.04		4.00	6.20**		2.83	0.01		3.46	9.37***			
	8세이상	220	3.44			3.84			2.83			3.64				
주부의 출생순위	장녀(외동)	191	3.45	0.41		3.92	0.02		2.84	0.04		3.58	0.92			
	차녀이하	258	3.42			3.91			2.83			3.52				
남편의 출생순위	장남(외동)	190	3.42	0.25		3.86	1.99		2.87	0.91		3.52	0.87			
	차남이하	259	3.45			3.95			2.80			3.57				

* p<.10 ** p<.05 *** p<.01 **** p<.001

주부의 결혼만족도는 취업 주부의 교육수준(p<.001), 남편의 교육 수준(p<.001), 주부의 연령(p<.05), 주부의 직업(p<.05), 남편의 직업(p<.05), 가족의 수입

(p<.05), 첫째 자녀연령(p<.05), 남편의 연령(p<.10)에 따라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의 집단(M=4.02)이 전문대졸 이하의 집단

(M=3.78)보다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집단(M=3.96)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M=4.04)이 전문대 졸업 이하의 집단(M=3.60)보다 높았다. 주부의 연령은 30세 이하의 집단(M=4.06)과 41세 이상의 집단(M=3.77)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세 이하의 집단이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은 교사 집단(M=4.00)이 비교사 집단(M=3.86)에 비해, 남편의 직업도 교육 계통의 집단(M=4.03)이 비교육 계통의 집단(M=3.86)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은 200만원 이하의 집단(M=3.80)과 301만원 이상의 집단(M=4.05)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수입이 많을수록 결혼 만족도가 높았다. 첫째 자녀 연령이 7세이하인 집단(M=4.00)이 8세 이상인 집단(M=3.84)보다 높게 나타났고, 남편의 연령은 40세 이하의 집단과 41세 이상의 집단(M=3.80)간에 차이를 보여 40세 이하의 집단이 결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시간 사용 및 역할 수행 만족도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주부의 경제 생활 만족도는 남편의 연령($P<.001$), 주부의 교육 수준($p<.001$), 남편의 교육수준($p<.001$), 주부의 직업($p<.001$), 가족의 수입($p<.001$), 주부의 연령($p<.01$), 남편의 직업($p<.01$), 첫째 자녀 연령($p<.01$)에 따라 유의하게 나타났다. 남편의 연령은 35세 이하 집단과 36세 이상의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여 36세 이상의 집단이 경제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남편과 주부의 연령이 41세 이상이 되면 높았던 경제 생활 만족도가 다시 다소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자녀들의 성장으로 인한 목돈 지출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주부의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M=3.66)이 전문대 졸업 이하의 집단(M=3.40)에 비해, 남편의 교육수준은 대졸 집단(M=3.59)과 대학원 졸업 이상의 집단(M=3.69)이 전문대 졸업 이하의 집단(M=3.24)보다 높았으며, 경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주부의 직업은 교사집단(M=3.69)이 비교사집단(M=3.45)보다, 남편의 직업은 교육계통의 집단(M=3.68)이 비교육 계통의 집단(M=3.49)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수입은 301만원 이상(M=3.82), 201-300만원 집단(M=3.56), 200만원

이하 집단(M=3.32) 순으로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경제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주부의 연령은 36-40세 집단(M=3.71)이 30세 이하 집단(M=3.45)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 36-40세 집단이 더 높았다. 또한 첫째 자녀 연령이 8세이하인 집단(M=3.64)이 7세이하인 집단(M=3.46)보다 경제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동거 이유에 따른 생활만족도

취업주부가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표 4>에서와 같이 동거이유가 취업주부 자신이 원해서가 20.7%, 남편이 원해서가 15.2%로, 부모님(어머니)이 원해서가 15.2%, 형편이 부득이 해서 32.4%로 나타났다. 현재는 함께 살고 있지만 형편이 허락된다면 따로 살기를 원하느냐의 질문에 53.5%가 형편이 허락되면 별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으며, 46.5%는 현재와 같이 동거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와의 동거 이유가 노부모의 빈약한 건강과 경제적 요인 때문인 경우 동거 부양자들이 노부모를 돌봄으로 인하여 별거 부양자 보다 더 많은 부양 스트레스를 지각한다는 연구(Lang & Brody, 1983)도 있지만, 현재 시어머니와 동거하고 있는 110명의 취업주부와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25명의 취업주부들이 별거할 여건이 조성되어도 전체의 46.5%가 현재와 같이 어머니와 함께 살겠다고 응답한 결

<표 4> 시어머니와의 동거 이유

	동거이유	빈도 (%)
시어머니와의 동거집단	내가 원해서	30 (20.7)
	나보다 남편이 원해서	22 (15.2)
	부모님(어머니)이 원해서	22 (15.2)
	형편이 부득이 해서	47 (32.4)
	기타	24 (16.6)
	계145	(100.1)
형편이 허락되면	계속 동거를 원한다	67 (46.5)
	별거하기를 원한다	77 (53.5)
	계144	(100.0)

* 전체수가 다른 것은 Missing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과를 볼때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1-2 동거 이유에 따라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동거 이유에 따른 전체 생활만족도는 <표 5>에서와 같이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가 원했거나 남편이 원해서, 부모님이 원해서 동거하는 집단과 형편이 부득이 해서 동거하는 집단간에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차이를 보였다. 즉, 형편이 부득이 해서 동거하는 집단의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동거 이유에 따른 결혼만족도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주부가 원했거나 어머니

이 원해서 동거하는 집단이 형편이 부득이 해서 동거하는 집단보다 결혼만족도가 더 높았다. 동거 이유에 따른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동거 이유에 따른 경제생활만족도에서는 p<.10 수준에서 차이를 보여 취업주부가 원해서 동거하는 집단과 형편이 부득이 해서 동거하는 집단간에 차이를 보였는데 취업주부가 원해서 동거하는 집단이 경제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형편이 허락되면 별거하기를 희망하는가라는 질문에 여건만 되면 따로 살고 싶어하는 취업주부 집단과 계속 동거를 원하는 취업주부 집단과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시간 사용 및 역할 수행 만족도에서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경제생활 만족도에서 계속 동거를 원하는 집단이(M=3.58)이 여건만 되면 따로 살고 싶어하는 집단(M=3.41)보다 더

<표 5> 동거 이유에 따른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변수		전체 생활만족도			결혼만족도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			경제생활만족도		
		M	F	LSD	M	F	LSD	M	F	LSD	M	F	LSD
동거하는 이유	① 내가 원해서	3.58		A	4.20		A	2.84			3.70		A
	② 나보다 남편이 원해서	3.57		A	4.04			3.04			3.65		
	③ 어머니님이 원해서	3.56	3.02**	A	4.06	3.10**	A	3.01	0.79		3.61	2.22*	
	④ 형편이 부득이 해서	3.26		B	3.73		B	2.77			3.29		B
	⑤ 기타	3.35			3.91			2.75			3.42		
형편이 되면	① 별거하기를 원함	3.39			3.93			2.85			3.41		
	② 계속 동거를 원함	3.44	0.27		3.93	0.00		2.82	0.05		3.58	2.13	

* p<.10 ** p<.05

<표 6> 어머니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취업 주부의 생활만족도

	집 단	N	M	SD	t	
생활만족도	동거	135	3.44	0.50	0.08	
	별거	314	3.43	0.47		
하 위 영 역	결혼만족도	동거	135	3.91	0.69	0.01
	별거	314	3.92	0.60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	동거	135	2.83	0.75	0.06	
	별거	314	2.84	0.71		
경제생활 만족도	동거	135	3.56	0.62	0.33	
	별거	314	3.52	0.66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2. 어머니(시·친정)와의 동거여부에 따른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2-1 어머니(시·친정)와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간에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표 6>에서와 같이 동거인 경우가 평균 3.44점, 별거인 경우가 평균 3.42점으로 어머니와의 동거여부에 의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하위영역인 결혼만족도,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 경제생활 만족도에 있어서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결혼만족도는 남편과의 관계 만족으로써 동거하는 집단의 평균이 3.91점, 별거 집단이 3.92점으로 4.00점에 가깝게 높은 반면,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는 각각 2.83점, 2.8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즉 노부모와의 동거는 고부간의 갈등 등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는 연구결과들과는 다르게 어머니(시·친정)와의 동거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가 평생직 전일제 취업주부이기 때문에 동거 자체가 취업주부에게는 반드시 부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나지는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2-2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과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간의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차이가 있는가?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과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간의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표 7>에서와 같이,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에서만 $p < .10$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의 평균이 2.79점,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 평균이 3.06점으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에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선주(1989)의 연구에서 딸 동거노인이 아들 동거노인에 비해 가사원조등의 도움을 많이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적 교류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결과와 일치하며, 또한 조병은·신화용(1991)의 연구에서 맞벌이 가족에 있어서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 보상이 가장 높고 비용이 가장 낮으며 관계의 질도 가장 높은 경향성을 보인다는 결과와도 일치한다.

V. 요약 및 결론

사회적으로 여성에 대한 교육의 기회확대와 직업의 분화 및 전문화 현상은 여성이 취업할 수 있는 직종을 다양화 시켰고, 여성 개인의 경제적 욕구의 증대로 주부들의 취업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이현송,

<표 7> 시어머니와 동거집단과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간의 생활만족도

		동거집단	N	M	SD	t
생활만족도		시어머니	110	3.40	0.50	1.17
		친정어머니	25	3.51	0.32	
하 위 영 역	결혼만족도	시어머니	110	3.90	0.63	0.77
		친정어머니	25	4.02	0.46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 만족도	시어머니	110	2.79	0.73	2.92*
		친정어머니	25	3.06	0.56	
경제생활 만족도	시어머니	110	3.53	0.68	0.12	
	친정어머니	25	3.47	0.57		

* $p < .10$

1996). 또한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이 증가되면서 노부모 문제와 자녀양육에 관한 문제는 주부가 취업한 맞벌이 가족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취업주부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를 어머니(시·친정)의 동거여부와 함께 알아보고, 이들과 함께 관련 변인들에 따라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중간 수준 이상($M=3.44$)으로 나타났으며, 결혼만족도는 3.92점으로 높았고,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는 2.83점으로 낮아서 취업주부의 시간부족과 역할갈등을 알 수 있었다. 취업주부의 일반적인 변인에 대한 생활만족도의 차이는 취업주부와 남편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취업주부와 남편의 직업이 비 교육계통보다는 교육계통인 집단에서, 또한 가족의 수입이 많을수록 높게 나타났다. 한편, 시어머니와의 동거 이유에서는 형편이 부득이 하여 시어머니와 동거하는 경우보다는 어느 쪽이든 원해서 하는 경우에 생활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동거하는 취업주부의 46.5%가 계속 동거를 희망하였다. 이것은 부모세대와의 동거가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김송애, 1991; 한은주, 1993)는 기존의 연구와는 달리 취업주부에 있어서는 부모세대와의 자원 교환으로 인한 상호 작용으로 동거 그 자체가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문제가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어머니(시·친정)와의 동거 여부에 따른 생활만족도의 차이에 있어서는 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과 별거하는 집단간에 차이가 없었다. 또한 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내에서도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의 취업주부의 시간사용 및 역할수행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친정어머니와 동거하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는 부모세대인 어머니와의 동거여부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어머니(시·친정)의 동거자체가 미치는 영향력은 미소한 것

으로 생각된다. 이는 부모세대와의 동거 특히 시어머니와의 동거가 고부간의 갈등을 심화시킨다는 다른 연구들과(김송애, 1991; 한은주, 1993; 송경아, 1987)는 달리 취업 며느리인 경우는 시어머니와의 동거도 상호교환적인 차원에서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는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다른 변인들이 더 많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이연숙(1991)은 남편의 지원정도가 생활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정우(1991)는 주부의 취업여부와 관련없이 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남편의 지지도가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과 관련하여 취업주부의 생활만족도에 밀접하게 관련되는 변수들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기혼 여성으로 남편과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생존하고 자녀가 1명 이상 있고, 지속적인 취업상태를 유지하는 전문직 성격의 전일제 취업주부로 한정하여 조사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취업주부 전반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비전문직의 취업주부, 또는 전업주부와와의 비교와 더불어 남편과 노부모의 특성도 고려하여 가족체계내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취업주부의 문제점에 현실적으로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 문헌】

- 1) 강인(1990), “중년기 가족 스트레스와 가족대처 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2) 강성희(1988), “취업주부의 직무만족도와 역할갈등도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3) 강주령(1990), “노년기 적응에 관한 연구 -가족 관계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4) 고미영(1992), “취업주부의 역할갈등에 대한 대처행동 : 교사, 공무원, 간호사에 대하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고정자(1987), “고부간의 갈등 원인과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구은옥(1989), “노인 부양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7) 김경숙(1993), “취업 주부의 가정 관리 능력과 행동 유형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8) 김명자(1990), “교환이론적 관점에서의 가족학 연구에 대한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8(3) : 148.
- 9) 김명자, 이윤정(1995), “성인자녀의 노부모 부양 부담 정도와 부양에 따른 부담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4).
- 10) 김송애(1991), “가족주의 가치관과 노부모 부양에 관한 연구 - 기혼 여성의 시가와 친가에 대한 비교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김순기(1993), “기혼 여성의 시어머니 및 친정어머니와의 상호지지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2) 김양희 외(1992), “학동기 자녀를 둔 맞벌이가족의 가족관계와 정책적 제언”, *대한가정학회지*, 5(2).
- 13) 김재경(1992), “부부의 갈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형성기 가정과 확대기 가정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14) 김재경, 문숙재(1992), “부부의 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1).
- 15) 노명희, 이숙(1991),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성취동기간의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9(4).
- 16) 도미향, 최희선(1990), “비전문직 취업주부의 결혼적응과 의사소통양식 및 그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8(2), 69-86.
- 17) 도주원(1994), “교환이론 관점에서 본 시모-자부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8) 문숙재, 김순미, 정순희 역(BI며, F.D. & M.A. Ferber 공저)(1994), *여성과 남성 그리고 노동의 경제학*, 서울:학지사.
- 19) 박미금(1993), “부부의 경제생활만족도 비교 분석 -주관적 경제수준 평가의 가계관리 행동을 중심으로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 박미령(1987), “한국 취업주부의 결혼만족도에 관한 일 연구 -성역할 태도와 주관적 자원 인지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1) 박미은(1993), “취업주부의 시간제약 지각에 따른 가사작업 수행방안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박성연(1989), “모자간의 애착 및 모의 결혼관계에 따른 아들 부부의 결혼만족도: 인과적 모형”, *대한가정학회지*, 27(2).
- 23) 박성연, 최혜경(1985), “노인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
- 24) 서동인(1989), “손자녀가 지각한 조모와 손자녀와의 접촉과 조모역할수행”, 경희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25) 송경아(1987), “고부간의 갈등 원인 및 조정 방안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26) 송현애, 김순옥(1988), “부양을 중심으로한 노모 - 성인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학회지*, 6(2).
- 27) 양명숙(1992), “부모 전환기에서의 결혼만족도”, *가족학논집*, 제3권.
- 28) 엄혜정(1990), “중년기와 노년기 남,여성의 노인 부양양식 비교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9) 윤유경(1985), “한국의 고부관계 변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0) 이신숙, 서병숙(1994), “노모와 동·별거하는 며느리가 지각하는 부양 스트레스의 결정 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31) 이정숙(1994), “취업주부의 시간관리전략, 가정관리행동 및 가정생활만족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이정연(1982), “남편의 성역할 태도와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3) 이정연(1987), “주부의 결혼만족도와 관련 변수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1).
- 34) 이정우(1991),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제 영향 변인에 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18.

- 35) 이정우, 김경숙(1993), “주부의 가정관리 능력과 가정생활 만족도와와의 관계”, *대한가정관리학회지* 31(3), 29-46.
- 36) 이정우, 황경혜, 정진희(1994),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가정관리행동시 스트레스 인 지수준과 가정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2(2).
- 37) 이연숙(1991), “맞벌이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한국가정관리학회 연구공모과제 제1호.
- 38) 이연숙, 유가효, 이순형, 조재순(1991), “기혼 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 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 39) 이현숙(1996), “기혼여성의 취업과 가족 소득의 관계”, 가족과 여성의 경제활동, 1996년도 한국가족학회 춘계학술대회.
- 40) 이호재(1988), *고전 사회학의 가족이론과 파킨스의 핵가족론*, 서울:카치 : 26-32.
- 41) 임정빈(1988), “가치 성향 의사 결정 양식 및 가정생활만족-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42) 임정빈, 고보선(1992), “가정경제안정도 인지와 가정생활의 질 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1-208.
- 43) 정선희, 오정옥(1991), “가계의 재정 불일치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19-35.
- 44) 정혜정(1985), “취업주부의 역할 갈등과 결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5) 조미환(1990), “도시주부의 가정관리 행동 유형과 가정생활만족과의 관계”,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6) 조병은, 신화용(1991), “맞벌이 가족의 성인 자녀·노모관계”, 가정복지 세미나, 현대사회와 가족문제.
- 47) 조혜정(1985), *전통적 경험 세계와 여성.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중)*,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93-140.
- 48) 최동숙(1992), “가정 관리 체계 구성 요소간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49) 최성재(1985), “교환이론적 관점에서 본 노인 문제”, *사회복지학회* 7 : 147 - 165.
- 50) 최외선, 손현숙(1991), “도시 주부의 자아 긍정감과 가정생활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29(4), 99-114.
- 51) 최지령(1991), “취업 주부의 역할관리 전략과 역할 갈등 수준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2) 최정혜(1992), “노부모가 지각하는 성인 자녀와의 결속도 및 갈등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3) 한국가족학 연구회(1991), *가족학 연구의 이론적 접근*, 서울:교문사.
- 54) 한경미(1989), “취업주부의 가사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7(2), 1-13.
- 55) 한은주(1993), “가족주의 가치관에 따른 부양 만족도와 부양 부담도”,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6) 한희선(1991), “고부 갈등에 관한 연구 - 서울시 시모를 중심으로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57) Berry, R. E. & Williams, F. L. (1987), “Asses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quality of life and marital and income satisfaction: A path analytic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107-116.
- 58) Hanson, S. L. (1991), “The economic costs and rewards of two-earner, two-parent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622 - 634.
- 59) Lang, A.M. & Brody, E. M. (1983), “Characteristics of middle-aged daughter and help to their elderly mothe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193 -202.
- 60) Lee, G. R. and Ellithorpe, E. (1982), “Intergenerational exchange and subjective well-being among the elderl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4 : 217-224.
- 61) Rhyne, D. (1981), “Base of Marital Satisfaction among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 497-509.